

##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07.19.(화)	담당	홍보팀 062-223-2022 artgwangju.official@gmail.com
자료구성	총 3쪽 별첨1) 홍보이미지, 로고이미지	보도일자	배포일로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 아트페어 '아트:광주:22', 10월 06일 개막

- 제 13 회 광주아트페어 '아트광주 22' 10 월 06 일 ~ 09 일 4 일간 진행
- '아트광주 22' 105 개 부스로 구성, 90 개 갤러리 (국내 80/국외 10) 15 개 작가 기획전 부스 (지역작가 80 명)
- '아트광주 22' 사전행사 '1 차 프리뷰' 07 월 21 일부터 프리오픈
- 스타트업 선도도시-신생 갤러리 지원 및 미술문화 메세나 조직위원회 출범
- 지속가능한 미술생태계 구축 및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미술향유의 장' 기대

제 13 회 광주아트페어(이하'아트광주 22')가 오는 10 월 06 일 목요일(개막식: 17:00-18:00)부터 10 월 09 일 일요일까지, 4 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1·2·3 관에서 개최된다.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협회광주광역시지회의 아트광주 22 사무국이 주관하는 '아트광주 22'는 '미술생태계를 지원하는 사랑받는 미술시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나아가 지역, 국내외 유명 갤러리 적극 유치 및 적극적인 신진작가 발굴, 다양한 부대 행사를 통한 고품격 아트페어를 지향한다.

'아트광주 22' 본전시를 구성하는 105 개 부스는 국·내외 갤러리 90 개와 아트광주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작가 기획전 부스 15 개로 이루어지는데, 80 개의 국내 갤러리와 10 개의 국외 갤러리가 선정되었다. 서울의 갤러리 조선, 동송갤러리, 지역의 갤

러리 자리아트 등이 참여하여 미술애호가들을 만나고 다양한 컬렉터들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작가 기획전 부스에 참여하게 될 작가로는 총 80 명이 선정되었다. 작가 기획전 부스는 국내외 갤러리와 연계하지 않는 지역작가를 위한 것으로 전통과 현대성을 겸비한 지역작가들로 구성된 주제별 다채로운 기획전을 진행함으로써, 아트 컬렉터, 갤러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작가들의 미술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창작 역량을 강화한다.

10월 초의 본행사에 앞서 프리뷰, 프레페어, 문화강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지난 7월 9일 (토)에는 NFT 관련 설명회가 있었으며, 향후 '아트광주 22' 일정에 맞추어 작가 기획전 부스 참여작가들을 위한 아트페어 사전행사를 프리뷰 형태로 네 차례 진행한다. '아트광주 22'의 1차 프리뷰는 오는 7월 21일 (목)부터 7월 27일 (수)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동구 금남로 231, 2층)에서 열린다. 21일 오후 3시부터 프리오픈으로 시민들은 무료로 개방된 전시장에서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작가들의 작품작을 미리 만나보고 구매 또한 할 수 있다. 1차 프리뷰에는 김기현, 문구, 변재현, 송필용, 오창록, 위진수, 장연희, 정순아, 정정임 그리고 조문현 등 10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프리뷰의 전시 관람이 가능하며 마지막 27일 (수)에만 오후 3시까지 문을 연다.

'아트광주 22'에서 새롭게 주목할 부분은 해외 갤러리와 교류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해외 갤러리가 페어 기간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것에 그쳤다면, 올해는 지속 가능한 상호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다. '아트광주 22'에 참여하는 해외 갤러리 중에서 교류 협력을 맺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의 갤러리 3곳과 아시아의 갤러리 3곳에서 각각 아트광주 사무국에 전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2023년도에는 아트페어에 참여한 지역작가들이 해당 국가 해외 갤러리의 기획전에 참여하여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아트광주 사무국에서 이번 '아트페어 22'를 기점으로 5년 미만의 신생갤러리를 지원하는 방침이 새로 생긴 점도 눈에 띈다. 아트광주 사무국에 따르면, 향후 5년간 5년 미만의 신생 갤러리에게는 아트페어 참가 부스비의 50%를 지원함으로써 스타트업 선도도시라는 광주광역시의 중요한 정책적 정체성에 발맞추어 새로운 갤러리들의 미술시장 진입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미술문화 메세나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켜 아트광주를 중심으로 기업, 공공기관, 전문컬렉터의 상호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미술시장 활성화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온라인 아트마켓 전시, 메타버스 전시 그리고 NFT 미술작품 판매 추진을 통해 '아트광주 22'의 다각적인 홍보 및 활발한 작품 매매를 위한 토대를 다지길 전망이다. '아트광주 22' 관련 자세한 일정은 '아트광주 22'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의 김준영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번 '아트광주22' 행사가 지역의 수준 높은 미술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예향의 도시를 방문하는 미술애호가들에게 광주의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즐기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트광주22' 운영위원장인 박광구 광주미협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광주의 미술문화를 확립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글로벌 아트페어로서 외연을 확장하여, '아트광주22'를 미술생태계를 지원하는 사랑받는 미술시장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문의: 062-223-2022 / [artgwangju.official@gmail.com](mailto:artgwangju.official@gmail.com)